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29장(성도여 다함께).....
※ 교독문127(사순절4).....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276장(아버지여 이 죄인을)
예배기도 1부 이경훈전도사 2부 강항구장로
응답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왜 날 사랑하나”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사순절특별새벽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 경건과 절제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갈라디아 5:22-23..... 김한순권사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절제하라! >
기 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 312장(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봉 헌 (5 구역)
봉헌기도 담임목사
성 찬 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토)		
사순절21일 특별새벽기도회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께 기 도 / 한마음기도 본 문 / 딤편6:1-21 말 씬 / 최세열목사 “믿음의 선한싸움” 주기도문 / 다같이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특별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인도 : 최세열목사 기도 : 한마음기도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예 배 위 원	안내위원	류종란 황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 음 주 기 도	1부	박세일집사	
	현금위원	3월	박기환 임병호 정선례 방옥남	다 음 주 성경봉독	2부	박홍만장로
		4월	심문자 윤승호 나금옥 김영숙		1부	말 은 이
	식당봉사	금주	바나바회 다음주 베드로회	다 음 주 찬양예배기도	2부	정숙자권사
헌신찬양	금주	5 구역	다음주	6 구역		

절제하라 ! / 갈라디아서 5:22,23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란 하고 싶지만, 그리고 할 수도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전9:25에서 참으로 이기려고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 속에서 신자가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생각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13:2은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생각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생각이 감정을 자극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함으로 주님을 팔았습니다. 예레미야6:1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그들의 생각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게 됩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전1:8,요일2:16)

볼거리가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환경 속에서 정신건강에 유해한 내용들이 너무 쉽게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보는 것을 절제함으로 복을 받은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 타락에 빠졌던 하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생각을 만들고, 잘못된 생각이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3.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인격은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지성은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는 바른 지식의 통제를 받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단은 사울 왕의 감정을 자극하여 다윗을 공격하게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버렸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요한6:63절은 말이 생명을 전달하는 매개체임을 가르쳐줍니다. 약3:6절은 말이 인생을 살리기도 하지만 지옥불로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에 파수군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시141:13) 벤전3:10절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말을 절제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5.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고 관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환경의 문제가 인간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결국 물질생활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 일과 휴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출34:21절은 옛세 동안은 일하지만 일곱째 날은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도 하지만 일과 휴식이 절제되지 않으면 건강과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휴식은 음악에서 쉼표와 같아야 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휴식은 다윗처럼 범죄 하는 자리에 서게

사순절 넷째 주(3월 30일)

제 14과 빌라도의 허울(요한복음 19장 1-16절)

(함께 읽을 말씀 : 이사야 59장1-3, 9-20, 디모데전서1장 12-17)

말씀묵상

1.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이 말은 곧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는 물음입니다. 그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얼굴을 때리고 희롱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한편 그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 주려고도 합니다. 속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빌라도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예수님 앞에선 자기는 놓아줄 수도 있고 잡아둘 수도 있다고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사실 빌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있었지만 참 진리에 다가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가 진리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또 언제 이 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은 권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요19:10).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분명 그의 자리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는 힘이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요구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따르는 것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과 가진 것을 내어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3. 우리는 혹시 이 빌라도처럼 허울뿐인 신앙인은 아닐까요?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잃어버리고 그저 모양만 그리스도인은 아닐까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이런저런 직분으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있으니 주님의 편에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그 어느 것 하나 누가 손해를 끼치거나, 자존심을 다치게 한다면, 우리 마음은 상처를 입고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버리지는 않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도 혹 내 위치가 위태로울까봐 입을 닫고 모른 척하는 일은 없나요?

주님은 진리를 위해, 진리를 따라,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손해와 위험을 마다치 않고 자청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나는 무엇 때문에 행동할까요? 선택과 판단 기준이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 안전한지 위험한지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맞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
만듭니다.

7. 영적생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영적생활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상생활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마22:37-40). 무엇보다 우리는 영적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시에 일상의 생활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절제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2. 사순절 21일 특별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교우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평일은 새벽5시에, 주일에는 찬양예배시간에 모입니다.
3.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중에는 금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5. 교우소식
 - * 윤승호집사(최경선권사)님의 장남 윤태수군의 결혼예식이 4월 5일(토) 오후2시 10분 전주N타워컨벤션웨딩1층에서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양석임 김기수 신혜영 박지영 강진숙 이문순 오복실 곽현석 김선주 원혜경 윤종원 서영자 김숙희 지대근 권세갑 김금자 이용훈 김영숙 선우명환 장영분 김근중 주종임 안복선 김애경 엄동순 정숙자
- 감사헌금 : 원혜경 김선주 이문순 김동현가정 김지환가정 양희임 장영란 김병진 김귀례 이종춘 심문자 무명 (일천번제) 김동현
- 건축헌금 : 김선주 원혜경 권세갑 김금자 김근중 주종임 양석임 이종춘 심문자 선우명환 장영분 김숙희 지대근 윤종원
- 비전씨앗 : 배영인 김예진 김승호 황은상 노장호 노현호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이현목	4	12,000	270	천사라	7	강은순	이영선	강은순	8	10,000	75	김숙희
2	정정희	김한순	정정희	4	15,000	127	김한순	8	김순님	오복실	차소라	5	17,000	130	허 동
3	이춘호	황경숙	박정일	4	15,000	300	이종봉	9	김인순	이영란	한미경	3	11,000	200	김선자
4	김기희	최경선	주종임	5	16,000		최경선	10	장영분	노순영	김영란	4	18,000	50	노순영
5	이문순	원혜경	방옥남	4	20,000		원혜경	계				44	154,000	1415	
6	류종란	김애자	류종란	4	20,000	263	안해숙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자제하느냐? -소크라테스

한 젊은이가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다. 그는 선생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이 젊은이에게 두 배의 수업료를 요구했다. "선생님, 왜 저에게만 그렇게 많은 수업료를 내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말이야, 나는 자네에게 두 가지 학문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지, 그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자제하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야. 그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더욱 어렵지. 하지만 자네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많은 고통과 함께 끊임없이 곤란을 당하게 될 걸세."

명언 :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있다.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의 절제

아무리 자기를 즐겁게 하는 소리일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멀게 된다면,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물욕에 빠지는 것은 귀만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니, 더더욱 삼가야 한다.

아무리 자기를 즐겁게 하는 볼거리일지라도 그것을 보아 눈이 멀게 된다면 보아서는 안 된다. 물욕에 빠지는 것은 눈만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니, 더더욱 삼가야 한다.

아무리 자기 입에 맞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먹어 병어리가 된다면, 먹어서는 안 된다. 물욕에 빠지는 것은 단지 병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것이니 더더욱 삼가야 한다. -여씨춘추-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13

2014.3.30.

사순절 21일 특별새벽기도회

1. 목 표

오늘처럼 심한 영적 빈곤과 지친 영혼에 새벽을 깨워 여호와와의 행적을 찾고 기도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통해 개인의 영적회복과 가정회복, 교회 회복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교우 전체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응답과 열매를 공부하는 새벽기도학교이며 기도의 축복들을 새벽에 체험하는 집중기도 운동입니다.

2. 기도회 표어

와서 여호와와의 행적을 보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시리라!

3. 주제찬양 :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4. 주제성구 :

“와서 여호와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하나님은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시편 46:5,8)

5. 기 간 : 2014년 3월 23일(주일) - 4월 12일(토) 새벽5시 (주일은 찬양예배시간에)

6. 주간별 주제

- 첫째 주 : 말씀을 찾아서 / 하나님이 찾는 기도자들
- 둘째 주 : 응답을 찾아서 /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 셋째 주 : 열매를 찾아서 /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들

● 구역별로 서로 깨우시고, 함께 나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영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